(財)東亞文化硏究院 地表調査報告 第8輯

거창 양평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4. 6

(財)東亞文化硏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Institute

目　　次

Ⅰ. 조사개요.....9

Ⅱ. 역사・고고분야의 조사.....10
1. 거창군의 자연환경.....10
2. 거창군의 역사적 환경.....12
3. 조사대상지역의 개관.....29
4. 거창군의 고고학적 환경.....31
5. 조사대상지역의 환경.....35
6. 조사내용.....36

Ⅲ. 조사단 의견.....37

참고문헌.....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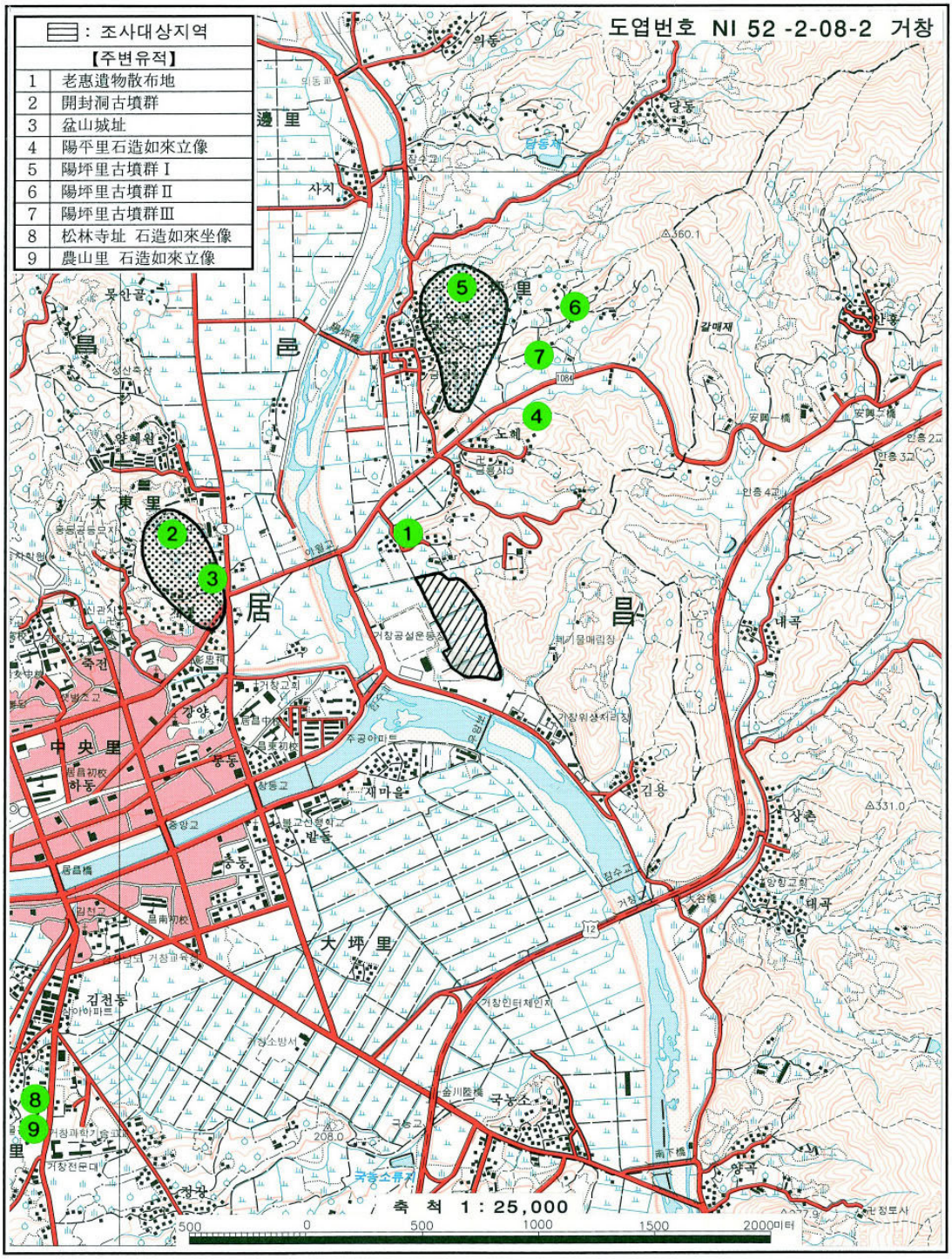
圖 版.....39

圖 面 目 次

도면 1. 조사대상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1/50,000)·····5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 (1/5,000)·····6
도면 3. 조사대상지역 지적도·····7

圖 版 目 次

도판 1. 거열성내에서 조망한 거창군 시가지(서→동)·····41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전경(서→동)·····41
도판 3. 조사대상지역 근경(남→북)·····42
도판 4. 조사대상지역 근경(북→남)·····42
도판 5. 기와산포지 근경(남→북)·····43
도판 6. 무문토기산포지 근경(남→북)·····43
도판 7. 토기・자기산포지 근경(남→북)·····44
도판 8. 기와산포지 수습유물·····44
도판 9. 무문토기산포지 수습유물·····45
도판 10. 토기・자기산포지 수습유물·····45
도판 11. 거열산성 전경(서→동)·····46
도판 12. 상림리 석조관음입상 전경·····46



도면 1. 조사대상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1/50,000)

Ⅰ. 조사개요

우리 연구원은 거창군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일원의 양평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구간내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 분포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장조사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일원의 양평근린공원 조성부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일대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고문헌조사 및 기보고된 각종 발굴조사보고서와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현장조사는 전구간을 도보로 답사하여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지역은 아래와 같다.

■ 조사단 구성

책임조사원 : 정우열(동아문화연구원 조사부장)
조 사 원 : 주영민(동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최희범(동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사보조원 : 노양필(동아문화연구원 연구원)

■ 총조사기간 : 2004. 5. 31 ~ 2004. 6. 19(착수일로부터 20일)

예비조사 : 착수일로부터 3일
현장조사 : 착수일로부터 15일
자료분석・정리・보고서 작성: 14일

■ 조사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일원

■ 과 업 량 : 107,275㎡

Ⅱ. 역사・고고학분야의 조사

1. 거창군의 자연환경

居昌郡은 경상남도 서북부의 내륙산간지방에 있는 지역으로,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도 39분~128도 6분, 북위 35도 31분~35도 56분에 해당한다. 동단이 가조면 도리(동경 128°05′55″)이며, 서단은 북상면 월성리(동경127°41′00″)이고 남단은 신원면 와룡리(북위 35°30′50″)이며, 북단은 고제면 봉계리(북위 35°54′40″)이다. 동서간의 거리는 37㎞이며, 남북간은 43.5㎞이다. 중앙 경선은 127°53′28″E이고, 중앙 위선은 35°42′45″N으로 그 교차점이 동변리 죽동의 서쪽 1.5㎞ 지점에 해당된다.[1] 관계적 위치로는 경상남도 서북의 끝으로 경상북도 및 전라북도와 맞닿아 있으며, 합천군・산청군・함양군・무주군・금릉군・성주군의 6개 군과 경계를 이룬다.

지형적으로 거창군은 소백산맥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남덕유산의 남부선에 해당하는 거창지역은 서부일대에 험준한 산령이 발달하고 있으며, 북부도 역시 서부와 마찬가지로 산지가 발달해 있다. 그렇지만 중남부의 거창읍 일대는 평야를 이루고 있어 거대한 '盆地相地形'을 이루고 있다. 거창은 지질형태상 주로 편암과 편마암류가 분포하는 북서부와 서부지역, 화강편마암류가 분포하는 북동부와 동부지역, 평야를 이루고 있는 중부지역 등으로 크게 세분할 수 있다.[2]

그리고 고원지대의 산록에는 침식된 저산성 산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화강암이 침식된 곳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북쪽으로는 德裕山(1,594m), 三峰山(1,254m), 修道山(1,316m), 丹芝峰(1,258m)이 연이어져 있으며, 서쪽으로는 箕白山(1,311m), 金猿山(1,352m) 등 거의 1,500m에 가까운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또한 동쪽으로도 頭利峰(1,135m)을 비롯한 1,000m 이상의 산들이 뻗어 있다. 그나마 남쪽으로는 인근에 비해 비교적 낮은 保錄山(796m), 鐵馬山(705m), 葛田山(763m) 등의 산들로 둘러싸여 산간분지를 형성하고 있지만 대분지 속에도 虎陰山(930m), 乾興山(563m) 등 비교적 높은 산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공수들・한들・월천들 및 남하면(南下面)의 대야리(大也里)일부지역이 평지이고, 고산지대의 산록에는 낮은 산지가 많이 분포하며, 화강암이 침식된 곳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리적으로 내륙 깊숙이 위치하여 隔海度와 大陸度가 경남의 어느 지

1) 居昌郡史編纂委員會, 『居昌郡史』, 居昌郡史編纂委員會, 1997.

2) 거창군, 『거창 거열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거창군, 1997.

역보다 높아 뚜렷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낙동강의 지류인 황강의 상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소백산맥의 산록에 거창·가조 등의 전형적인 분지가 발달해 있다.[3] 특히 경상남도 거창군은 도내 타 지역보다 고도가 높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200m 이하의 낮은 평지는 한들을 중심으로 하여 영호강 주변 지역에 산재하고 있다. 결국 거창일대는 이들 산지에 둘러싸인 산간분지가 주축을 이루고, 乾興山(563m)·普海山(912m) 등이 분포되어 작은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분지는 일반적으로 거창분지로 지칭되고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북서부 지방의 거창분지, 가조분지, 야로분지, 위천분지 등 작은 분지들은 모두 황강 상류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화강암 개석분지이다. 이 분지지형은 강의 중·상류에 하천의 침식작용과 화강암의 부분 침식으로 형성되며 들이 좋고 사방으로 산이 있어 농촌지역의 중심지가 된다. 거창분지는 阿月川과 濫川이 합류하며, 화강암 지역으로 인하여 침식이 잘 진행되어 형성된 분지로 규모가 매우 큰 대표적인 분지지형으로, 예부터 이 지역의 중심지가 되어왔다.[4] 즉 거창일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서북부 내륙지대 3대 국립공원의 중심지이자 표고 200m 이상의 분지지형이라는 점이다.

이 일대의 山川은 文獻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산과 물이 아름다운 山紫水明한 고장이다. 이러한 산들은 모두 소백산맥의 지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덕유산과 가야산에서 뻗어내린 지맥에 솟은 봉우리들이다. 이를 근간으로 거창일대의 지형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北高南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산들은 낙동강의 지류인 황강(黃江)·남강(南江)·감천(甘川)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지형적 영향으로 인하여 하천들도 대체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북상의 월성계곡에서 동류하는 星川과 소정계곡에서 남류하는 葛川(일명 소정천)이 합쳐져서 渭川이 되고(이것이 거창에 와서 영천으로 불렸다), 開明川과 高梯川이 합쳐져서 主尙川 또는 浣溪가 되는데 여기에 熊陽川 또는 渼水가 합쳐져 阿月川을 형성하게 된다.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 중심의 변성암류를 기반으로 하여, 중생대에 관입된 화성암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소규모로 화강암과 제4기의 충적층이 분포되어 있다. 토양은 모암의 분포를 볼 때 화강편마암류가 많아서 대부분이 사질토양이다. 거창 흙의 PH 수치는 논이 5.5, 밭이 5.3으로 논보다 밭의 산성이 더 심하며 경남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논·밭의 산성화가 심한 편이다. 또 운적토 보다는 정적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창군은 영남내륙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대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심한 편이다. 지형적 요소를 많이 받는 탓으로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추운 대표적인 內陸性氣候 지역이지만, 겨울철의 북서풍과 여름철의

3)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는 유일한 高原地帶인 鎭安高原에 이어져 있는 산지지대의 일부이다.

4) 居昌郡史編纂委員會,『居昌郡史』, 居昌郡史編纂委員會, 1997.

남동풍인 계절풍을 막아 주는 자연적 장벽인 높은 산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바람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지역에 속한다. 강우는 여름철인 6~9월에 집중되는데 연강우량의 65%를 점하고 있으며, 米作, 果樹, 畜産 등 農業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8월 평균기온이 26.0℃이며, 1월 평균기온 -2.5℃, 연강수량은 1,177㎜이다.[5]

거창은 예부터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오늘날 대구, 광주, 진주, 김천과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88고속도로가 관내를 통과하는 것을 비롯해 국도 4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다. 면적은 804,09㎢로 경상남도 대비 7.65%에 해당하며, 행정구역은 1읍 11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청소재지는 거창읍 상림리이다.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세대 수는 24,664가구이며, 인구는 66,370명이다.(2003년 12월 통계자료)

2. 거창군의 역사적 환경

(1) 거창군 역사 개요

현재의 거창군은 거창읍을 중심으로 하는 主尙, 熊陽, 南上, 南下, 加祚, 加北 등 옛 거창과 1914년 편입된 渭川, 馬利 등 옛 安義의 일부 및 神院面 등 三嘉의 일부를 편입한 지역으로서 역사적 연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3개의 옛 縣을 같이 파악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사시대 거창지역에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가 황강의 상류인 거창읍 부근까지 퍼져 있고, 고인돌과 선돌이 발견되고 있다. 거창읍 동동에서는 삼국시대의 거대한 봉토를 가진 거창 개봉고분이 보존되어 있다.[6] 또한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서 북방식 지석묘로 추정되는 주상면 내오리 지석묘, 남방식 지석묘인 농산리 지석묘, 대야리 지석묘, 무릉리 산포지석묘를 비롯한 고인돌 유적등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미 이 시기에 어느 정도의 권력을 지닌 지배세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집자리 유적으로는 壬佛里 선사주거지, 大也里 선사주거지, 산포 선사주거지 등이 있어 이미 이른 시기부터 이 일대에서도 사람들이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한시대에는 거창일대가 弁辰의 '古淳是國'으로 비정되고 있으며,[7] 가야시대에는 '子他'라고도 부른 듯하다. 지금의 위천면을 중심으로 한 일대를 '禮'[8] 또는 '南

5) 거창군, 『거창 거열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거창군, 1997.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7) <史料 1> 주 참조.

8) '稔禮'라고도 부른다.(『慶南民俗資料集』, 慶南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

內'라고 불렀다.(『三國史記』참조) 삼국시대에는 '居陁' 또는 '居列, 居烈'이라는 명칭으로 문헌에 나타나고 있으며, 가야연맹의 하나가 이 지역에 존재했다고 한다.[9] 지리적으로 소백산맥의 준령을 감싸 안은 곳으로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역에 위치하였던 탓에 전략적인 요충지로 양국의 쟁탈전이 심했던 지역인데, 이 흔적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때로 이와는 반대로 두 나라의 완충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백제의 義慈王 때 와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첨예화되었다. 이는 백제가 麗濟同盟을 바탕으로 신라를 협공하여, 신라의 서쪽 40여 성을 빼앗고 대야성까지 함락하였던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 때 거창일대가 백제의 지배하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후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망하자(660년) 곧바로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居列城(또는 居烈城)을 중심으로 하여 이곳에서도 항전을 하였다. 그렇지만 신라의 欽純, 天存 등이 공취하여 700여 명을 참살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고 한다.[10]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거열성 주변에는 금귀산고성을 비롯하여 많은 산성이 산재하여 있다는 점이다. 축조시기는 불확실하나 가야시대의 성으로 추측되는 분산성, 말흘고성 등이 있으며, 용문고성, 호음고성, 고학산성, 성기성, 하성, 성령산성 등 성지가 남아 있는 곳만도 16곳이나 된다는 점은 바로 이 지역이 접경지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지 외에도 이 일대에서는 寺址의 흔적도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현 거창군청 자리가 옛 아림사지(娥林寺址)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일대에서 신라시대의 석재가 출토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략적인 거점으로 중요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 때 이르러 비로소 거창일대가 거열주가 되었는데 이는 백제 멸망 후 文武王이 거창일대를 중심으로 서부 경상남도 일대를 관할하고 당의 야욕을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치적인 안배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보인다. 이후 文武王 5년(685) 전국을 9주로 개편하면서 거타주를 나누어 지금의 진주시에 菁州를 설치하고, 이곳에는 거열군을 두었다.[11] 이후 景德王 16년(757)에 비로소 居昌郡으로 개칭되었다. 이 때 거창군의 영현은 2개였는데, 南內縣이 餘善縣(지금의 위천)으로 加召縣이 咸陰縣(지금의 가조)로 개칭되었으며, 이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이웃군인 天嶺郡(지금의 함양)이나, 江陽郡(지금의 합천)에 속했다. 신라 하대의 혼란기 때 거창일대는 신라의 영내였으나, 신라로 통하는 전략상의 요충지였던 탓에

---

9) 거창읍 개봉동 고분군, 마리면 말흘리 고분군, 남하면 무릉리 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들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삼한시대 이후부터 삼국시대까지 문헌에 나타나는 거창일대의 지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주시의 옛 이름과 똑 같아서 서로 혼동된 것인지 아니면 서부 경상남도 지방을 총칭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0) 이 거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현재 거창읍 상림리 소재의 건흥산의 古城을 거열성으로 보아 도기념물 제22호 지정되어 있다. <史料 2> 참조.

11) <史料 3> 주 참조.

후백제 甄萱의 빈번한 침입을 받아 후백제의 지배하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후 후삼국을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 초기인 太祖 23년(940)에 동부의 咸陰縣을 원래의 이름인 加召縣으로 환원하고 서부의 餘善縣을 感陰縣으로 하여 각각 한 현으로 삼고 거창군도 거창현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지방 행정조직이 정비되던 成宗朝 14년(995)에 10도로 개편했다가 顯宗 9년(1018)에 전국을 4도호부 8목으로 개편하였는데, 이 시기에 지금의 합천군이 州로 승격하면서 거창현으로 강등하였다.[12] 지금의 거창군 행정구역은 거창현을 비롯하여 가소현(가조, 가북면 일대), 감음현(위천, 북상면 일대), 利安縣(함양군 안의면, 마리면 일부로 추정), 三岐縣(신원면 일부) 등 5개 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웃한 7개 현(가수현, 산음현, 단계현, 신번현, 야로현, 초계현, 함양현)과 더불어 陜州에 영속되었다.

이후 毅宗 15년(1161)에 서부의 감음현에 부고사건이 일어나자 현을 없애고 感陰部曲으로 강등시켰다. 그러다가 明宗 2년(1172)에 監務가 배치되어 합주의 속현에서 벗어났으며, 가소현을 속현으로 삼았다. 그러나 元宗 12년(1271)에는 거듭되는 왜구의 침범으로 거제현이 가소현으로 피난오자 가소현을 거제현으로 이속하였다. 그리고 恭讓王 2년(1390)에 서부의 감음부곡을 감음현으로 되살리면서 남쪽 일부에 있던 이안현을 받아들였다. 사실 거창지방은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고려초기의 중앙 호족 및 무인집권층의 수탈이 비교적 심하지 않았지만 여말에 왜구의 침입은 자주 겪었다. 그렇지만 거창일대는 내륙 깊숙이 입지한 조건으로 인해 왜구의 큰 병화를 직접적으로 당하지는 않았다. 단지 인근의 폐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피해를 감수하였던 것이다.(그런데 禑王 5년(1379)에는 처음으로 왜구들이 거창지역까지 침입하였다고 한다)[13]

조선시대에 와서는 太宗 14년(1414)에 가소현에 우거한 거제현과 거창현을 濟昌縣으로 통합하였다가 이듬해 거창현으로 환원하여 현감을 두었다. 太宗 17년(1417)에 서부가 속했던 감음현을 안음현으로 고쳤다. 그리고 世宗 4년(1422)에 당시 동부에 있던 거제현이 150년 만에 옛 섬으로 귀환함에 이르러 다시 제창현이 거창현이란 이름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리고 世宗 14년(1432)에 거제현이 본도로 수복하였으며, 燕山君 즉위년(1495) 왕비 愼氏의 내향이라 하여 한 때 거창현을 거창군으로 높였다가, 中宗反正(1506)으로 端敬王后 신씨가 폐위되자 거창현으로 다시 낮추었다.[14] 孝宗 9년(1658)에 '奴殺主의 變'을 이유로 거창현을 없애

12) 顯宗이 大良院君(대량은 합천의 옛 이름이다)에 있다가 왕위에 올랐고 또 그의 생모인 獻貞王后(또는 孝淵太后)의 내향이므로 주로 승격하였다고 한다.

13) 거창일대는 고려 말 왜구의 피해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전란들의(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정변 등) 큰 피해 없이 피난지로서 안정 속에서 독특한 지방문화를 꽃피웠다. 보물로 지정된 불상문화재나 사적으로 지정된 둔마리 벽화고분, 거제의 거창 피난 등이 이 시기를 나타내는 단적인 경우이다.(居昌郡史編纂委員會, 『居昌郡史』, 居昌郡史編纂委員會, 1997.)

14) <史料 12> 주 참조.

고 안음현에 붙였다가 顯宗 1년(1660)에 章義信의 상소로 거창현을 되찾았다. 이후 英祖 4년(1728)에는 '戊申亂'으로 안의현을 폐했다. 그리고 이듬해에(1729년) 戊申亂으로 폐현된 안음부의 북부를 편입하여 居昌府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英祖 12년(1736)에 안의현을 다시 두면서 거창부는 거창현으로 강등되었다가, 英祖 15년(1739) 中宗의 妃였던 단경왕후가 신원 복위되면서 다시 거창부로 높여졌다. 그리고 英祖 43년(1767)에 안음현을 安義縣으로 고쳤다.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高宗 32년(1895) 지방관제 개편 때 거창군・안의군・삼가군으로 되었다.

1914년 일제시대 때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안의군의 北上・北下・古縣・東里・南里 5개 面을 거창군에 붙임으로써 서부가 되었고, 삼가군의 神旨・栗院 2개면을 거창군에 붙여서 본 군의 남부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합천군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해방 후 한국전쟁 당시 거창양민학살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겪기도 하였고, 1973년 함양군의 안의면 春田里와 眞木里를 남상면에 편입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15]

(2) 거창군과 관련된 문헌자료

史料 1 :『三國志』<魏書> 東夷傳

변한의……古淳是國이다.……[16]

史料 2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3年

(文武王 3년)…… 흠순과 천존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거열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7백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또한 거물성과 사평성을 쳐서 항복하게 하였다……[17]

史料 3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神文王 5年

5년 봄……거열주를 구분하여 菁州를 두니, 처음으로 구주가 되었다……[18]

史料 4 :『三國史記』卷34 <雜誌>3 地理1

거창군은 원래 거열군이었던 것을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이 군에 속한 현은 둘이다. 여선현은 원래 남내현이었던 것을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은 감음현이다. 함음현은 원래 가소현이었던 것을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은 옛 이름으로 회복되었다.[19]

---

15)『居昌郡史』(居昌郡史編纂委員會, 1997)의 p.103 <거창군 연혁표> 참조.

16) 弁韓……古淳是國…….

17) (文武王三年)……二月 欽純天存領兵 攻取百濟居列城 斬首七百餘級 又攻居勿城沙平城 降之…….

18) 五年春……挺居列州 以置菁州 始備九州…….

史料 5 :『高麗史』卷 57 <志> 第11 地理2

(거창현은) 본래 신라의 居烈郡인데 景德王이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 顯宗 9년(1018)에 본주에 소속시켰고 明宗 2년(1172)에 감무를 두었다.[20]

史料 6 :『高麗史』卷57 <地理地>11 地理2

가조현은 원래 신라의 가소현(이 지방 방언으로 발음이 비슷하므로 召는 음이 변하여 祚로 되었다)인데 景德王은 咸陰으로 고쳐서 거창군이 관할 하는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다시 옛 명칭으로 고쳤고, 顯宗 9년(1018)에 본주에 소속시켰다가 후에 다시 거창군에 소속시켰으며, 元宗 12년(1271)에 거제에 이속시켰다.

감음현은 원래 신라의 南內縣인데 景德王이 餘善으로 고쳐서 거창군이 관할하는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顯宗 9년(1018)에 본 주에 소속시켰다……[21]

史料 7 :『世宗實錄』卷150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居昌縣

본래 居烈郡(居陀라고도 한다)인데 신라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고, 고려 顯宗 戊午에 陜州 任內에 붙였다가, 明宗 壬辰에 비로소 감무를 두었으며, 본조 太宗 甲午에 巨濟와 합하여 濟昌縣으로 일컫다가, 乙未에 다시 나누어 居昌 縣監으로 하였다. 別號는 娥林이다. 屬縣이 1이니, 加祚縣이다. 이는 본래 加召縣인데 신라에서 減陰으로 이름을 고쳐서 居昌郡의 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예전 이름으로 다시 고쳐 顯宗 戊午에 陜州 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옮겨져 居昌으로 붙였는데, 元宗 辛未에 巨濟로 移屬시켰다가 本朝 今上 4년 壬寅에 도로 居昌에 붙였다.…(중략)…호수는 5백 5호, 인구는 1천 6백 40명이다.[22]

史料 8 :『增補文獻備考』卷16 <輿地考>4 郡縣沿革2

……〔晋州府〕진주・고성・진해・사천・곤양・남해・단성・산청・하동・거창・안의・함양・합천・초계・삼가・의령・칠원・함안・창원・웅천・김해의 21郡을 관할하였다……[23]

---

19) 本居烈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餘善縣 本南內縣 景德王改名 今感陰縣 咸陰縣 本加召縣 景德王改名 今復故.

20) (居昌縣)本新羅居烈郡(一名居陁) 景德王改今名 顯宗九年來屬 明宗二年置監務.

21) 加祚縣 本新羅加召縣(因方言柜近變召爲祚) 景德王改名咸陰 爲居昌郡領縣 高麗初復古名 顯宗九年來屬 後還屬居昌 元宗十二年移屬巨濟.
感陰縣 本新羅南內縣 景德王改名餘善 爲居昌郡領縣 高麗初更今名 顯宗九年來屬…….

22) 本居烈郡(一云居陁) 新羅改今名 顯宗戊午 屬陜州任內 明宗壬辰 始置監務 本朝太宗甲午 合于巨濟昌縣 乙未 復析爲居昌縣監 別號娥林 屬縣一 加祚 本加召縣 新羅改名減陰 爲居昌郡領縣 高麗復古名 顯宗戊午 屬陜州任內 後移屬居昌 元宗 辛未 移屬巨濟 本朝今 上四年壬寅還屬居昌…(중략)…戶五百五口一千六百四十.

史料 9 :『增補文獻備考』卷16 <輿地考>5 郡縣沿革3

경상도는 본래 辰國의 땅인데, 뒤에 북쪽은 辰韓이 되고 남쪽은 弁韓이 되었다.…(중략)…거창・웅천・칠원・김해・창원・함안은 우도에 속하였다.……24)

【표1】

진・진한	・	
신 라	거창군	본래 거열군으로 일명 거타라고도 한다.
	함음현	본래 가소현으로 婆娑王 때 성을 쌓고, 景德王 때 함음으로 고쳤다.
고 려	거창군	顯宗 때 합주에 편입시켰다가 明宗 때 다시 설치하였다.
	가조현	顯宗 때 합주에 편입시켰다가 후에 거창에 편입하였는데 거창 동쪽 25리에 있다.
조 선	거창군	太宗朝에 거제를 편입시켜 제창이라 부르다가 후에 떼어서 현을 설치하였다. 燕山君 때 군으로 승격시켰다가 中宗朝에 다시 현으로 강등시키고 孝宗 9년(1658)에 安陰에 편입시켰다가 顯宗 원년(1660)에 다시 설치하고 英祖 4년(1728)에 도로 현으로 강등시키고 高宗 32년(1895)에 군으로 고쳤다.

史料 10 :『增補文獻備考』卷27 <輿地考>15 關防3 城郭3

〔거창〕 金貴山城 : 동쪽 15리에 있는데,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1천 5백 87척이다. 지금은 廢城이다. 성 안에 우물이 2곳 있다. 城山城 : 북쪽 5리 平岡 위에 있는데, 돌로 쌓았다. 둘레가 3리이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삼국시대에 쌓았다"라고 한다. 乾興山城 : 북쪽 8리에 있는데, 돌로 쌓았다. 둘레가 3리이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삼한시대에 쌓았다"라고 한다. 月谷山古城 : 邑誌에는 그 基址가 있다고 하였다.25)

史料 11 :『新增東國輿地勝覽』卷31 <巨昌郡>

동쪽으로 陜川郡 경계까지 28리이고, 남쪽으로 三嘉縣 경계까지 28리이며 山陰縣 경계까지 34리이다. 서쪽으로 安陰縣 경계까지 25리이고, 북쪽으로 知禮縣 경계까지 46리이며, 전라도 茂朱縣 경계까지는 66리이고, 서울까지의 거

23) ……〔晋州府〕諸晋州 固城 鎭海 泗川 昆陽 南海 丹城 山淸 河東 居昌 安義 咸陽 陜川 草溪 三嘉 宜寧 漆原 咸安 昌原 熊川 金海 二十一郡…….

24) 慶尙道 本辰地 後北爲辰韓 南爲弁韓…(중략)…居昌 熊川 漆原 金海 昌原 屬右道.

25)〔居昌〕金貴山城 在東十五里 石築 周一千五百八十七尺 今廢 內有井二 城山城 在北五里平岡上 石築 周三里 世傳三國時築 乾興山城 在北八里 石築 周三里 世傳三韓時築 月谷山古城 邑誌有基址.
여기서『新增東國輿地勝覽』의 <비고>에 나오는 성지를 살펴보면,〔城址〕乾興山古城 : 신라 文武王 13년에 居烈州 萬興寺의 산에 쌓았는데, 성의 둘레는 3리이다. 加祚古縣城 : 금귀산성이라 하며, 신라 婆娑王 8년 7월에 가소에 쌓았는데, 성의 둘레는 1천 5백 87척이며 우물이 2개이다. 古城 : 북쪽으로 5리, 平岡 위에 있는데 둘레가 3리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두 사료를 같이 비교해 볼 때 각 다른 성지를 말하는 바도 있지만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위치로 비정되는 성지도 파악된다.

리는 7백 35리이다.

〔建置沿革〕 본래 신라 居烈郡(居陁라고 한 곳도 있다)인데, 景德王이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 顯宗이 합주에 예속시켰고, 明宗이 비로소 감무를 설치하였다. 본조 太宗朝에 거제현과 합쳐서 濟昌이라 부르다가, 뒤어 다시 나누어 거창현으로 만들고 例대로 현감으로 고쳤다. 전하 원년에는 왕비의 內鄕이라는 것으로 군으로 승격시켰다.

〔屬縣〕 加祚縣 : 현 동쪽 15리 지점에 있다. 본래 신라 가소현이었으나, 방언이 서로 비슷하므로 召가 변하여 祚로 되었다.…(중략)…(高麗) 元宗 때에 거제현이 三別抄의 난을 피해서 관아도 여기에 우접하고 그대로 거제라 일컬었다. 우리 世宗祖에 와서 거제는 본래 섬으로 돌아가고 현도 또한 거창으로도로 예속시켰다.

〔郡名〕 거열・거타・아림・제창.

〔形勝〕 본 도에서 가장 서쪽 지역이다. 북쪽으로 三峰山을 바라보고, 남쪽으로 紺嶽을 바라본다.

〔烽燧〕 金貴山烽燧 : 남쪽으로 합천 所峴에 응하고, 북쪽으로 巨末訖山에 응한다. 巨末訖山烽燧 : 우마현 서쪽 봉우리이다. 남쪽으로 금귀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지례현 龜山에 응한다.

〔學校〕 鄕校 : 군 북쪽 3리 지점에 있다.

〔佛宇〕 乾興寺 : 건흥산에 있다. 普海寺・普光寺 : 모두 수도산에 있다. 見巖寺 : 우두산에 있다.

〔祠墓〕 사직단 : 군 서쪽에 있다. 문묘 : 향교에 있다. 성황사 : 군 동쪽 4리 지점에 있다. 여단 : 군 북쪽에 있다.[26]

史料 12 :『燃藜室記述』別集 卷16 <地理典故> 州郡

거창 : 신라 때의 居烈郡이니 居陁라고도 하다가 거창으로 고쳤다. 고려 때 현을 두었다. 太宗 때 거제와 합하여 濟昌이라고 부르다가 곧 예전대로 회복시켰다. 燕山君 초기에 군으로 올렸다.(왕비의 고향이다) 中宗 丙寅에 다시 현으로 낮추었다가 英宗 己酉에 府로 올렸다.(거창 신씨인 단경왕후가 복위한 때

26) 居昌郡 : 東至陜川郡界二十八里 南至三嘉縣界二十八里 至山陰縣界三十四里 西至安陰縣界二十五里 北至知禮縣界四十六里 至全羅道茂朱縣界六十六里 距京都七百三十五里.
〔建置沿革〕 本新羅居烈郡(一名居陁) 景德王改今名 高麗顯宗屬陜州 明宗始置監務 本朝 太宗朝 合于巨濟縣 號濟昌 後復析 爲居昌縣例改縣監.
〔屬縣〕 加祖縣 在東十五里 本新羅加召縣 因方言相近變召爲祚…(중략)…元宗時 巨濟縣避三別抄之亂僑治于此仍稱巨濟 至我 世宗朝巨濟還于本島 縣亦還屬于居昌
〔郡名〕 居烈 居陁 娥林 濟昌.
〔形勝〕 一道西極之地 北望三峰 南瞻紺嶽.
〔烽燧〕 金貴山烽燧 : 南應陜川所峴 北應巨末訖山 巨末訖山烽燧 : 卽牛馬峴西峰 南應金貴山 北應知禮縣龜山.
〔學校〕 鄕校 : 在郡北三里.
〔佛宇〕 乾興寺 在乾興山 普海寺 普光寺 俱在修道山 見巖寺 在牛頭山……(하략).
〔祠廟〕 社稷壇 : 在郡西 文廟 : 在鄕校 城隍祠 :在郡東四里 厲壇 : 在郡北.

문이다) 娥林이라고도 한다. 22면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7백 35리이다. 가조는 속현이다.(신라 때 가소현을 함음으로 고쳤다)[27]

史料 13 :『慶尙道邑誌』<居昌郡邑誌>(1832년)

〔建置沿革〕본래 신라의 거열군(일명 거타라고도 한다)으로 景德王 때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 顯宗 때 합주에 예속시켰으며, 明宗 때 비로소 감무를 설치하였다. 본조 太宗朝에 거제와 합하여 제창으로 불렀다…….

〔郡名〕거열・거타・아림・제창.

〔戶口〕元戶 5,016호에 인구는 25,156명이다.[28]

史料 14 :『嶠南誌』卷61 <居昌郡>

〔地勢 및 位置〕본 도의 서부에 있는 지리산 맥이 길게 뻗어나가고 있는 언저리로 북쪽으로는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루며 가야산이 우뚝 서있고, 동쪽으로는 김천, 합천군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에는 산청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함양의 여러 면과 연접하고 있다.…(중략)…동경 128도 8분이고, 북위는 35도 50분이다. 면적은 51이며, 방리가 50개이다.

〔郡名〕거열・거타・아림・제창・거창이다.[29]

이상의 사료에서도 드러나듯이 거창일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으로 여기에 발췌한 史料들은 일목요연하게 거창일대의 변천과정을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고대부터 거창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지명의 역사적 변천과정,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을 파악하여 몇 가지로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창군을 비롯한 인근일대의 地名變化를 알 수 있다.

역사상에서 나타나는 거창군의 지명을 종합하면, 크게 弁辰時代의 古淳是國, 가야시대의 子他라고 비정되고 있으며, 위천면의 경우 禮, 南內로 지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창군은 '거열, 거타, 아림, 제창'이라는 지명으로 불리웠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거창군을 비롯한 인근일대의 行政變遷을 알 수 있다.

삼한시대는 지명만 비정될 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에

---

27) 居昌 新羅居烈郡 一名居陁 改居昌 高麗置縣 太宗合巨濟號濟昌 尋復舊 燕山初陞郡(王妃鄕) 中宗丙寅復降 英宗己酉陞府(溫陵復位) 娥林 二十二面 距京七百三十五里 加祚屬縣(新羅加召縣 改咸陰)

28)〔建置沿革〕本新羅居烈郡(一名居陁) 景德王改今名 高麗顯宗屬陜州 明宗始置監務 本朝太宗朝合于巨濟縣號濟昌…….
〔郡名〕居烈 居陁 娥林 濟昌.
〔戶口〕元戶五千十六戶 人口二萬五千一百五十六口內.

29)〔地勢及位置〕在本道西部智異山脈蜿蜒 北方作全羅北道界伽倻山屹立 東部作金泉陜川郡界 南接山淸西連咸陽諸郡…(중략)…東經一百二十八度八 北緯三十五度五十 面積五十一 方里五十.
〔郡名〕居烈 居陀 娥林 濟昌 居昌.

는 ‘거열주, 거타주, 거열군, 거창군’으로 행정지역의 변화가 있었으며, 위천면의 경우 ‘남내현, 여선현’으로, 가조의 경우는 ‘함음’이라 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함음은 ‘가조’로, 여선현은 ‘함음현’으로 바뀌었으며, 거창군은 ‘거창현, 감음부곡, 제창현’ 등으로 陞降의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거창이 거제와 분리되어 당시의 사정에 따라 거창현 또는 거창군으로 陞降을 거듭하였을 뿐 큰 변화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셋째, 거창군의 산천과 경계를 알 수 있게 한다.

거창군과 접하고 있는 인근 郡縣들과의 경계 및 거리, 서울과의 거리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최 서북부지역으로 지리산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경상·전라북도와 접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방위 및 산천(形勝)에 대해 소략하지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경관과 자연산천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당시의 호구와 인구, 일대의 關防시설, 寺刹 기타 사실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3) 거창군의 유적과 문화

1) 城郭과 烽燧[30]

지금까지 남아 있는 군사시설물로는 城郭과 烽燧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군사시설물을 일컬어 關防이라 한다. 거창군은 지리적으로 볼 때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호남을 경계로 하는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이자 때로는 완충지의 역할을 점하였다. 특히 신라와 백제, 통일신라와 후백제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아직까지 여러 군데에 많은 관방유적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다. 이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居烈城(거창읍 상동 산45일대, 도기념물 제22호)

이 성은 일명 乾興山城이라고 하며, 덕유산 줄기의 563m의 乾馬山 끝 부분의 꼭대기에 있다. 성 아래에서 성곽이 보이지 않게 산의 지세와 능선의 기복을 이용하여 축성한 요새와 같은 산성이다. 백제의 부흥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31] 덕유산과 지리산 등의 산악지대에 축성된 여러 성 중에서 신라에 가장 가까운 곳이며 규모 또한 가장 크다. 이곳은 무주 방면으로 진출하는 길목으로 신라와 백제 사이의 매우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다.

---

30) 거창군에 산재한 여러 城郭과 烽燧유적에 대해서는『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9),『居昌郡史』(居昌郡史編纂委員會, 1997), 및『增補文獻備考』卷27 <輿地考>15 關防3, 城郭3 慶尙道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이를 참고로 정리한 것이다.

31) <史料 2> 주 참조.

백제의 부흥운동 당시『三國史記』에 기록된 거열성이 지금의 거열성으로 비정된다. 지금은 거의 허물어져 그 흔적의 일부만 건흥산 말단의 산정에 남아 있으며, 성 아래에서는 성곽이 보이지 않는다. 이 성의 축조연대에 대해서는 사료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삼한시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은 둘레 2.1㎞, 높이가 8m, 폭 7m 정도에 이르니 매우 튼튼하게 축조한 성임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석재가 그대로 남아 있어 원형복원이 가능하다. 성문터는 서쪽에 있으며, 성 아래까지 옛 도로가 남아 있다. 7개의 망루 흔적이 있으며, 안에는 건물터 유구로 보이는 축대와 井戶址가 있으며, 동쪽에는 水源이 있다. 삼국시대의 고산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성 안의 면적은 18,452평, 주위가 2.1㎞, 높이가 8m, 폭 상부가 4m, 하부가 7m로 되어 있다.[32]

② 益山城址(거창읍 동동 산 38일대)

『東國文獻』에 보면 평강에 석축하였는데, 주위 3리이며 삼국시대에 쌓은 성이라고 전해 온다. 삼국시대의 거열성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위치와 크기로 보아 옛날 城內城으로도 추측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읍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거창읍 개봉리 뒷산 평평한 산 위에 토석으로 혼축하였는데 곳곳에 석축 일부가 남아 있다. 여러 종류의 기와조각, 토기와 자기파편이 출토되고 있다.

③ 汗基里城(응양면 한기리 산6, 문화재자료 제92호)

하성 산정에 있어 '霞城'이라고도 한다. 산의 정상부를 성내로 하는 포곡식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성벽은 자연석으로 쌓아 올린 협축수법으로 만들었다. 산성의 축조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 때 백제가 신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처음 쌓았다고 한다. 이후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을 방비하기 위하여 구축하였다고 한다. 李鎰 장군이 加藤淸正과 싸우다 패전한 곳이다. 남매의 축성 전설로 인하여 치마성이라고도 한다. 이성은 석성이며 둘레 1.5㎞로서 성의 흔적이 뚜렷이 보이고 있으며, 현재 석축은 높이 2m, 길이 10m가량 남아 있다.

④ 黃沙山城(가북면 용산리)

현재 용산마을 동쪽 일명 박구디에 南平 文氏가 살았다고 하며, 임진왜란이 일어나 일본군이 이곳으로 진격하여 오자 문씨들이 성을 축조하고 왜군에 대항하였다고 전해온다. 현재 성벽은 많이 허물어져서 30m만 흔적이 남아 있고 성의 전체 규모는 알 수 없으며, 성 주위는 밭으로 개간되어 있다. 성안에는 전화로 불타버린 군량미의 흔적이 남아 있다.

---

32) 韓國精神文化硏究院,『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9.
이 거열성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다.(『거창 거열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7. 참조)

⑤ 기타 城址

・城峰城址(거창읍 상동) : 신라에 망한 백제의 유민들이 이곳에 성을 쌓고 3년간 백제의 부흥운동을 벌였다고 전해 오고 있다. 현재 약 2㎞의 성벽이 거창읍 상동 가지리, 마리면 영승리에 접해 있다.

・盃山城(거창읍 개봉리) : 작은 구릉상에 있으며, 대부분 붕괴되었으나 둘레 1㎞의 토석혼축 성지로서 형태만 남아 있다.

・鼻鶴里城址(마리면 비학리) : 이곳은 봉화산이라고 전해 오고 있으며, 현재 토성 둘레가 150m가량 남아 있다.

・月谷山城址(남하면 무릉리) : 임진왜란 때 왜군의 침입에 대항하여 의병들이 이곳에 성을 쌓고 전투를 하였다고 전해 오며, 평시에는 農城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현재 거의 붕괴되어 석축 일부만 볼 수 있는데, 길이가 150m이다.

・龍山里城址(가북면 용산리) : 임진왜란 때 가조면 장기리 원천마을에서 집단 이주한 竹山 全氏들이 왜군에 대항하여 성을 쌓았다고 전해온다. 성의 일부는 허물어졌고 전체성의 길이는 500m로 추정되며 현재 100m가량 남아 있다.

・金貴山城(일명 加祚古縣城)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의하면[33] 석축으로서 둘레 1,587척이며 성안에 우물이 2개 있었다고 한다.『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加召와 馬頭城을 쌓았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흔적이 없다. 후에 봉수대로 사용되었다.

・大坪城(거창읍 한들 일대) : 거창읍 들성이다. 대평이란 큰 들을 의미하며 임진왜란 때 축조되었다.

⑥ 烽燧[34]

・金貴山烽燧(거창읍 양평리) : 석축으로『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의하면 남으로는 합천 소현, 북으로는 거마흘산에 응한다고 하였다.

・巨末訖山烽燧(웅양면 헌기리) : 토석혼축 하였으며, 규모는 둘레 20m, 높이 3m, 폭 3~4m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의하면 곧 우마현 서쪽 봉우리인데, 남으로 금귀산봉수, 북으로는 경북 지례현 귀산봉수로 연결하였다고 한다.

2) 居昌郡의 寺刹 및 佛敎文化財[35]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창군은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앙의 수탈이 타 지

33) <史料 10> 주 참조.

34) <史料 10> 주 참조.

35) 여기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居昌郡史』(居昌郡史編纂委員會, 1997)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거창군 寺刹을 요약·정리하였다. 기타 사찰의 종파 및 유물·유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역에 비해 그나마 심하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왜적의 침입이나 병화가 잦지 않았던 곳으로 그 나름대로의 불교문화를 꽃 피울 수 있었고, 따라서 이전의 신라시대부터 많은 불교문화 유적이 있었다. 비록 元 나라의 침입(몽고의 침입)과 그 이후 대부분 사라지고 흔적들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그 중 일부를 요약·정리하기로 한다.

① 陽平里 石造如來立像(거창읍 양평리 479-1, 보물 제377호)

양평리의 金龍寺에 있는 이 석불은 높이 4m에 가까운 巨像으로 원래 이 부근에는 金陽寺 또는 老惠寺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석불은 몸의 굴곡이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앞 시기에 비하여 얼굴이 비만해졌고 옷주름 곳곳에 도식화의 경향이 엿보여 통일신라 전성기 양식을 계승한 8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지만 다소 경직된 표정이며 머리는 螺髮이 뚜렷하다. 목에는 三道가 선명하며 通肩으로 걸친 대의자락은 몸에 밀착되어 가슴과 허리, 양다리의 볼륨이 뚜렷하다. 왼손은 인지만을 곧게 펴 가슴높이로 들고 오른손은 곧게 내려 엄지와 인지로 옷자락 끝을 살짝 쥔 특징적인 수인을 맺었다.

대좌는 複瓣覆蓮座이며 앞쪽에 仰蓮石이 놓여져 있다. 석불의 주위에는 구획이 설정되어 있는데 네 모서리에 네모진 기둥받침을 설치하고 그 사이로 긴 장대석으로 연결하였다. 전체적으로 정제된 조형미에서 벗어난 흩어진 조형성을 보이나 통일신라 후반기의 양식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② 葛溪里 三層石塔(북상면 갈계리 728-1, 도유형문화재 제77호)

탑불 마을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탑의 형태는 石材結構方式이다. 기단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탑신석 폭, 그리고 遞減律이 거의 없는 탑신의 구성 등으로 보아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석탑이다. 기단부는 상·하층 각 면에 양 우주와 탱주가 부각되어 있고 탑신이나 기단부에 조각은 없다. 옥개석은 받침이 4단이며 추녀 끝은 약간 도툼하다.

③ 古見寺石佛(가조면 수월리, 도유형문화재 제263호)

신라 文武王 17년(677)에 창건된 고견사 경내에 안치되어 있으며 석조여래상으로 재질은 화강암이다. 머리는 육계가 뚜렷한 素髮形이며, 정면의 얼굴은 형태가 다소 마멸되었으나 윤곽은 선명하다. 특히 귀는 길게 어깨까지 내려왔고 목은 비교적 짧은 편에 삼도는 없다. 천의는 통견의이며 수인은 通印이다. 광배는 모두 남아 있는데, 두광은 單瓣蓮花文과 蓮珠文으로 처리되어 그 당시의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④ 松林寺址 石造如來坐像(거창읍 김천리 거창박물관 내, 도유형문화재 제311호)

마리면 말흘리 송림마을의 절터에서 출토되어 마리중학교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 전체적으로 불상은 하반신 부분이 깨어져 나가고 마멸이 심한 편이다. 부분적으로 머리는 소발에 육계가 낮은 편이며,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엿보인다. 대의는 通肩衣이며, 양 어깨와 소매자락에는 平行密集文이 뚜렷하다. 양손은 마멸되어 불분명하지만, 손의 위치로 보아 智拳印일 가능성이 크다.

⑤ 娥林寺址(거창읍 상림리 일대)

지금의 상림리, 중앙리 일대에 아림이라는 큰 숲이 있었는데 그 중앙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몽고의 침입 때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지금은 당시의 5층석탑과 쌍사자석등 일부와 석재편 등이 남아 있다. 거창의 별칭인 '娥林'은 이 숲과 절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5층석탑은 허물어져 객사의 주춧돌로 사용되고 있던 것을 모아 현 로타리 중앙에 복원한 것이다. 탑의 기단부와 탑신 등은 복원한 것이나 전체적인 형태로 미루어보아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아림사지 외에도 문헌기록에 보이는 乾興寺를 비롯한 金陽寺, 密集寺, 토구사, 普海寺, 普光寺, 龍溪寺 등 많은 寺址들이 거창일대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유물들도 출토되고 있다.

3) 居昌郡의 書院・祠宇・鄕校・亭・古家 분포 현황[36]

① 居昌鄕校(거창읍 가지리 346, 지방유형문화재 제230호)

향교는 행정구역인 府・牧・郡・縣에 설립된 지방 교육기관으로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개선과 보급에 노력하였다. 거창향교 역시 조선 太宗 15년(1415)에 대성전을 짓고, 宣祖 5년(1572)부터 3년에 걸쳐 대성전을 중건하였으며, 宣祖 7년(1574)부터 2년에 걸쳐 현감 張文翰이 명륜당을 중건하였다. 그렇지만 임진왜란으로 소실, 복구되지 못하다가 仁祖 1년(1623)에 이르러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건하게 되었고, 肅宗 40년(1714) 현감 金始嬪이 春風樓를 건립하였으며, 1799년에는 부사 李性이 東西齋를 중건하였다. 그 후 純祖 9년(1809) 춘풍루 중건, 憲宗 6년(1840)에 동서재 중수 등 지방수령들이 심혈을 기울여 왔다.

현재 이 향교 대성전에는 5聖과 孔門十哲, 宋朝六賢 및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석전을 봉행한다. 건물규모는 大聖殿・明倫堂・東齋・西齋・春風樓 및 기타건물 3棟이 있다.

---

36)『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書院』(안장헌・이상해, 1999),『한국의 건축문화재7-경남편』(강명환, 1999),『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집부, 1991),『居昌郡史』(居昌郡史編纂委員會, 1997)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② 心穌亭(남하면 양항리 대곡 958, 문화재자료 제58호)

살목마을의 서쪽, 황강의 동쪽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주위의 풍광이 절경이다. 조선 世宗 때 丹城縣監을 지낸 華谷 尹孜善 선생이 귀향하여 世祖 5년(1459)에 이곳에 정자를 건립하고 강학하던 곳이다. 그 후 英祖 33년(1757)에 윤공의 외손인 전주 이씨와 밀양 박씨가 함께 중수하였다.

건물구조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목조기와이다. 전체적으로 정자의 규모와 내부의 공간구성이 적절하게 배합되었고 동시에 주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정자 옆 뜰에는 윤공의 행적을 말해 주는 遺墟碑가 있다.

③ 某里齋(북상면 농산리 673, 도유형문화재 제307호)

桐溪 鄭蘊(1569~1641) 선생이 은거하던 곳을 기념하여 유림들이 건립한 齋舍로 사당・모리재・서무・花葉樓・내삼문・협문 등과 유허비 1기로 이루어져 있다. 대문채인 화엽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2층 누각으로써 자연석을 원형으로 다듬은 초석 위에 원주를 사용하였으나, 전면 좌측의 받침기둥 2주는 후대에 대리석을 팔각으로 다듬어 세웠다.

④ 鄭蘊先生 生家(위천면 강천리 50-1, 중요민속자료 제205호)

정온은 본관이 草溪, 호는 桐溪, 시호는 文簡이다.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和議에 반대하다가 굴복하자 관직을 물러나 덕유산에 칩거하다가 생을 마쳤다. 이조판서를 추증받았던 인물이다.

이 고가는 후손들이 純祖 20년(1820)에 와서 중창한 것이다. 연대는 사랑채의 상량문에 보이는 <崇禎紀元後四庚辰三月>이라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건물구성은 안채・사랑채・중문채・가묘・대문채 등으로 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8칸, 측면 3칸 반이며 방위는 전형적인 남향배치를 하고 있다. 평면구성은 前後退가 있는 일자형의 2열 겹집이라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양반가옥치고는 비교적 기단이 낮게 배치되었고 반면에 툇마루가 높게 설치되었는데 이 유형은 삼남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편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훤철한 느낌을 주고 있다.

⑤ 葛溪里 林氏古家(북상면 갈계리 1167, 민속자료 제9호)

전형적인 조선시대 목조기와 건물이다. 明宗 때 판결사였으며 효자로 이름 난 林薰(호는 自怡堂, 枯査翁, 세칭 葛川)가 거처하던 곳으로 中宗 2년(1507)에 건립한 것이다.

현재 건물구성은 안채・사랑채・가묘・장판각・솟을대문 등으로 되어 있다. 안채 전면에 사랑채가 병렬로 배치되었으며 안채의 우측 뒤편에 가묘가 위치하고 있

다. 안채는 정면 5칸의 맞배지붕이다. 대청 전면의 기둥 2개만 圓柱이고 나머지는 角柱로 처리하였다. 후에 임훈의 덕행을 추모하여 정려문이 내려졌는데 지금의 대문에 閣門해 두었다. 정려문 위에는 이조판서를 추증한 정려패가 걸려 있다. 안채의 전면 우측 장판각에 그의 문집인『葛川集』과[37] 동생 林藝의 문집책판을 보관하고 있다.

⑥ 武陵里 鄭氏古家(남하면 무릉리 1136, 도유형문화재 제287호)

전형적인 조선시대 목조기와 건물이다. 조선 英祖 때 將仕郞을 지낸 鄭榮初(호는 山水亭)가 1751년에 건립한 것이나 현재의 건물은 1924년에 중수한 것이다.

건물구조는 안채·사랑채·대문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안사랑채는 헐리고 일부 변경된 구조로 남아 있다. 건물배치는 경사지에 기단을 1m 이상 높게 축조하여 대지의 안쪽 높은 곳에 안채를, 바깥쪽 낮은 곳에 사랑채를 배치하였고 누마루 형식으로 되어 있다. 양반가옥의 전형적인 '내려다보기'의 의식이 적용된 건물이다.

안채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ㄷ'자 평면의 삼량구조 맞배지붕 홑처마이며, 정면 4칸, 측면 2칸의 일자 평면에 양협간 1칸과 3칸을 전방으로 돌출시켜 'ㄷ'자 평면을 만들었다. 사랑채 건물의 3면 외부에 마루를 두르고 鷄子欄干을 설치하였다. 동쪽 끝의 마루도 누마루 형식이고, 3면에 平欄干을 설치하였다. 그 하부는 아궁이를 두어 개방시켜 놓았다. 이 사랑채 건물의 이름이 山水亭이다. 대문은 정면 3칸의 맞배지붕 형식이며 가운데는 솟을대문으로 처리하여 외관상 웅장한 느낌을 안겨 준다.

⑦ 書院【표2】

번호	명칭	소재지	창건연대	배향인물	연혁 및 유래	향사일 (음력)
1	龜淵書院	위천면 대정리	肅宗 20년 (1694)	愼權 외	高宗 4년(1867) 훼철 1989년 재건	2·8월10일
2	金溪書院	위천면 강천리	純祖 3년 (1803)	李元達 외	高宗 5년(1868) 훼철	불향
3	基洞書院	가조면 기 리	1919년	鄭夢周 외	龍溪精舍로 창건 후에 忠義祠 개칭, 중건 1985년 기동서원으로 승격, 개칭	2·8월10일
4	道山書院	가조면 도 리	顯宗 2년 (1661)	金宏弼 외	高宗 5년(1868) 훼철	불향
5	龍源書院	거창읍 서변리	肅宗 20년 (1694)	文緯	高宗 5년(1868) 훼철	불향

37) 갈천선생 문집 책판은 도유형문화재 제168호로 지정되어 있다. 문집책판은 4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에는 五言絶句인 詩言, 2권에는 疏·墓碣·銘·行狀·序·書를, 3권에는 銘·祭文·通文·記를, 4권에는 行狀·墓碣·挽詞·祭文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목판은 선생의 서문을 지은 尤庵 宋時烈 선생이 안음현감에게 문집판각을 명하여 배나무를 갈계마을 앞 논물에 3년간 담가두었다가 판각하였다고 전한다.

6	屛巖書院	가조면 사병리	肅宗 33년 (1707)	卞仲良	高宗 5년(1868) 훼철	불향
7	星川書院	북상면 월성리	肅宗 21년 (1695)	宋浚吉	함양군 안의면 厚岩에 창건 후에 현 위치로 이건 高宗 5년(1868) 훼철	불향
8	濬濱書院	남하면 무릉리	英祖 20년 (1744)	鄭秬 외	高宗 1년(1864) 훼철 1919년 유림협조 復設	2·8월 中丁日
9	迎勝書院	마리면 영승리	1925년	李滉 외	향중유림의 발의로 건립	상동
10	浣溪書院	주상면 완대리	顯宗 5년 (1664)	金湜	高宗 5년(1868) 훼철	불향
11	龍泉書院	가조면 원 천	肅宗 37년 (1711)	全八顧 외	高宗 5년(1868) 훼철	불향
12	鶴林書院	위천면 대정리	肅宗 45년 (1719)	權時敏 외	高宗 2년(1865) 훼철 ※ 遺墟碑 현존	불향
13	華山書院	거창읍 가지리	1985년	柳子雯 외	당초 龍泉書院을 창건했으나 高宗 5년(1868) 훼철 후, 1985년 현 위치에 서원을 건립	4월 10일

⑧ 祠宇【표3】

번호	명칭	소재지	창건연대	배향인물	연혁 및 유래	향사일 (음력)
1	藍田祠	남하면 양정리	未詳	尹景南 외	100년 전 현위치로 재건	2월 上丁日
2	茶川祠	가조면 원천리		郭鍾錫		
3	德川享祀	위천면 상천리	純祖 11년 (1811)	慶復興 외	高宗 5년(1868) 훼철	불향
4	尙忠祠	가조면 도리	1890년	秦再溪	1984년 중수	3월 3일 9월 9일
5	聖巖祠[38]	주상면 연고리	1913년	宋秉珣 외	사림의 발의로 건사	3월 上丁日 9월 上丁日
6	嶧川享祀	위천면 강천리	仁祖 12년 (1634)	林得藩 외	당초 함양군에 창건 正祖 23년(1799) 현 위치 이건 高宗 5년(1868) 훼철	불향
7	靖忠享祀	위천면 모동리	正祖 7년 (1783)	金文起 외	高宗 5년(1868) 훼철	불향
8	彰忠祠	거창읍 대동리	正祖 12년 (1788)	愼克終 외		3월 5일
9	忠義祠[39]	가조면 동례리	高宗 28년 (1891)	吳世昌	사우건립과 동시에 琴糊齋 건립	3월 9일 9월 9일
10	花川享祀	위천면 대정리	純祖 18년 (1818)	愼復振 외	高宗 5년(1868) 훼철	불향

38) 건축적 가치보다는 항일운동사와 관계된 인물의 역사적 기념이나 향토사적 의미가 높은 문화재이다. 문화재자료 제231호로 지정되어 있다.

39) 英祖 1년(1737)에 사액 받았으며, 현재 지방유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어 있다.

11	褒忠祠[40]	웅양면 노현리	英祖 13년 (1737)	李述原	당초 동오리 동동에 창건 正祖 1년(1777) 현 위치로 이건 대원군 훼철령에도 보존됨	2월 中丁日 8월 中丁日

4) 居昌郡의 無形文化財 및 행사

낙동강 유역에 전승되는 行爲傳承은 100여 종 이상이 있다. 널리 알려진 놀이로서는 줄싸움, 매구놀이(農樂), 달집 태우기, 연날리기,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윷놀이, 地神밟기 등이 있고, 지역 놀이로서는 밀양군의 용호놀이, 횃불싸움, 병신굿 놀이, 등불 띄워 보내기, 창녕군의 쇠머리대기(木牛戱), 자차놀이, 단오굿(文戶長굿), 落水燈 놀이, 晋州·統營·固城·가산의 五廣大놀이, 동래·수영의 들놀음(野遊戱) 등이 있다.[41] 거창군과 관련된 無形文化財와 民俗놀이, 巫俗信仰, 洞祭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횃불싸움, 石戰(돌싸움, 돌쌈)

정월 보름을 즈음하여 석전과 횃불싸움이 성행했는데, 풍농을 기원하는 행사였다.

이 지방에서는 일제시대 초까지도 마을 사이에 돌싸움이 있었다고 전한다. 매년 일정한 시기에 약 3일간 邑·面이나 시골마을 사람 사이 등에서 석전이 열린다. 이 놀이의 시기는 꽤 오래된 것 같다.[42] 처음에는 아이들이 하고 점차로 어른에게로 확대되는데 석전의 승패는 洞運을 좌우한다 하여 돌을 던지고 '망팔매', '줄팔매'라는 것으로 노끈 끝에 작은 돌을 결박하여 그것을 서서히 돌리다가 돌만이 빠져 나가게 하는 것이다. 패주자를 따라 마을에까지 침입하여 가옥을 파괴하는 일도 있고 밤에는 횃불로써 서로 싸웠다고 한다. 또 하인들끼리의 싸움이 끝나면 양반은 양반끼리 兵法을 이용하여 싸우기도 하였다. 나라에서는 우수한 자를 뽑아 '擲石軍'을 편성한 일도 있다.[43] 그러나 점차 무기의 발달로 실효성을 상실하자 금지시켰지만 민간풍속으로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다. 그리고 횃불싸움은 죽전과 개봉마을에서 성행하였는데, 쥐불놀이를 마치고 난 다음 장작에다 불을 붙여 이것을 상대 마을의 사람들에게 던져 승부를 내기도 했다.

② 징장(거창읍 학리, 보유자 : 이용구, 무형문화재 제14호)

징은 풍물·사찰의 祭儀·무당의 굿·궁중의 禮樂·군대의 隊列·신호물에 이르

40) 문화재자료 제57호로 지정되어 있다.

41)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慶南民俗資料集』,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

42)『高麗史』辛禑(禑王)傳에 보인다.

43)『世宗實錄』13년 5월 乙丑條에 <擲石軍高麗所設>라고 하였다.

기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한 악기이다. 징은 구리와 주석을 72:28의 비율로 혼합하여 쇠녹이기→바디기만들기→뉘핌질→돋음질→냄질→싸개질→부질→담금질→터집잡기→풋울음→가질→울음잡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이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울음잡기로 오랜 경험이 있는 대정이만이 육감으로 울음을 잡을 수 있다. 현존의 징 울음잡이장으로는 전국 제일의 수준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징은 방짜징으로 전통방식의 수작업으로 만들어져 그 소리가 웅장하고 파장이 길어 긴 여운을 남기는 것이 큰 특징이다.

③ 삼베일 소리(거창읍 가지리, 보유자 : 이말주, 무형문화재 제17호)

예로부터 삼베의 고장인 이곳에서 삼베일을 하면서 불리워지던 소리로 모두 7개의 작업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밭매기소리→삼잎치기소리→삼곶소리→물레소리→삼삼기소리→베매기소리→베짜기소리의 7마당으로 구성된 삼베일 소리는 거창 민중들 삶의 의식과 생활감정을 꾸밈없이 나타내고 있다.

④ 洞祭

동제는 洞虞祭라고도 하는데 우리 민족 고유의 전승의식이다. 주로 마을의 무사태평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이며 마을의 전체주민이 함께 참례하는 합동의식이다. 거창지역 인근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木神祭 : 마을의 老巨樹를 신격으로 하여 지내는 제사인데, 확실한 유래는 알 길 없으나 아마 옛날 樹木崇拜의 사상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인다.

・堂山祭 :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主山에 神堂을 짓거나 노거수 아래에 암석을 神壇으로 하여 제사를 행하는 것인데, 이는 산신에 대한 신앙에서 유래된 것이다.

・立石祭 : 동구 앞에 큰 돌을 세워 놓고 그 돌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격상시킨 다음에 이를 신격화하여 지내는 제사였는데, 지금은 거의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城隍堂祭 : 마을 근처에 특별한 집을 지어 마련한 곳도 있으나, 마을과 마을 사이 고갯길의 고목 밑에 작은 돌을 모아서 성황당을 마련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를 신격화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長丞祭 : 나무 또는 돌로 만든 것인데, 사원과 읍촌의 입구 또는 길을 안내하는 경계지점에 주로 세워졌다. 보통 정월 보름에 행하여졌던 풍습이다.

3. 조사대상지역의 개관

이번 조사대상지역은 거창읍 양평리 일원의 양평근린공원(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지구로 면적은 107,272㎡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창군은 1읍 11면을 관할하고 있는데, 1읍이 바로 거창읍이다, 원래 천내면・천외면・동부면으로 된 邑內面

(1914년)이 1937년 1월에 거창면으로 되었다가, 1937년 7월에 거창읍이 되었다. 모곡면·가(을)지면·음석면으로 된 邑外面(1914년)에서 명칭을 바꾼 월천면을 1957년에 편입하여 지금의 거창읍이 된 것이다.[44] 이 지역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거창읍은 지리적으로 거창군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읍소재지는 상동리이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居昌郡, 居昌縣, 居昌府의 治所가 있었던 곳으로 이 곳의 행정·경제·교육·교통의 중심지이다. 본래 위천의 안쪽이 되므로 천내천이라 하여 6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8개 동리로 개편, 이를 관할하다가 1957년 居昌邑制 실시에 따라 월천면의 5개 동리를 병합하여 거창읍으로 승격하여 13개 동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驟雨嶺(792m)·官述嶺·金貴山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북으로 황강, 동서로 위천이 흘러 그 유역에 발달된 동서 4㎞, 남북 6㎞에 이르는 거창분지의 낮고 평평한 지역이 중심을 이룬다.[45]

면적은 거창군 전체의 면적인 804,09㎢ 중 56㎢로 약 7%에 해당하며, 1읍 37개의 행정동과 13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현황은 세대수가 13,373가구이며, 인구가 39,823명이다.(2003년 12월 통계) 거창읍은 주상면, 마리면, 남하면, 남상면과 접하고 있다. 거창읍 관할의 東部面은 조선 말기까지 濫川의 북동 언저리를 지칭한 것으로 竹田里를 비롯한 5개 里가 있다. 川內面은 동부면의 서쪽에 두었는데 桑林里를 비롯한 3개 里가 있다. 川外面은 거창읍의 영천 남쪽에 따로 천외면을 두었으며 節婦里를 비롯한 6개 里로 나뉘어져 있다. 毛谷面은 阿月川 서쪽 북서부 일대에 있으며, 龍源里, 毛谷里의 2개 里가 있다. 陰石面은 아월천 동편 金貴山의 서쪽 기슭인 북동부 일대에 두었으며, 沙旨里를 비롯한 3개 里로 나뉘었다. 이 외에도 갈지면(加乙旨面), 邑外面, 月川面이 속한다.

이 중에서 양평근린공원이 조성되는 陽坪里는 조선시대의 陰石坊이였으며, 陽坪·堂洞·老惠·金龍의 4개 마을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평(가네들)은 마을 앞에 큰 돌이 서 있었는데, 돌 그늘이 마을까지 이르렀다하여 그 돌을 음석이라 하고 지명도 음석방이라 하였다. 음석 그늘돌이라는 것이 '거널돌·가너들'로 변하여 細坪이라고도 썼다. 世宗朝에 거창 신씨의 선조인 愼言이 개화리에서 옮겨옴으로써 마을이 되었다. 조선말까지 음석면의 소재지였다고 한다. 당동(땅골, 봉우땅골)은, 북동쪽에 있는 금귀봉(872m)이 옛날 봉화산으로서 여기에 봉수대의 수비꾼이 거처하던 당이 있어서 불리운 명칭이다. 아랫땅골(下堂洞)과 웃땅골(上堂洞) 2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中宗朝에 창녕 성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한다. 노혜(홈거리)는 조선시대 때 東部坊 老惠里였다. 마을 가운데 누에 모양으로 생긴 낮은 산이 길게 뻗어 나와 누에들 또는 뉘들이라 하고, 큰 길

44)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을 가로 질러 논밭에 물을 대는 큰 홈통이 있었으므로 홈거리라 하였고, 옛날에 노혜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金龍은 옛날 마을 앞 황강 냇물에서 사금이 나왔고 용이 놀았다는 龍沼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조선 肅宗 때 경주 최씨가 마을을 세웠다고 한다. 마을 북서쪽에 城峴이라는 작은 재가 있는데, 옛날 성터가 있어서 붙어진 이름이라 한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수양골이 마을과 접하고 있는데 물과 햇빛이 가득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창읍의 유물·유적으로는 분산성이 있고 분청사기편도 출토되었으며, 아림사지·거열산성지·건흥사지 등이 있다. 문화재로는 상동석조물·상동석조관음입상·건계정·거창향교 등이 있다.

4. 거창군의 고고학적 환경

거창군은 경상남도 북서부의 내륙지방에 위치하며, 북쪽은 경상북도의 김천시, 서쪽은 함양군, 남쪽은 산청군, 동쪽은 합천군과 접하고 있다.

거창군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시작한 시기는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성과에 의하면 최소한 구석기시대로 소급된다. 1986~1987년에 걸친 부산여자대학교[46] 발굴조사단에 의해서 조사된 남상면 임불리 天德寺址[47]에서 細石器와 신석기시대 전기의 주거유적[48]을 발견하였으며 그곳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같은 해에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의해서 조사된 남하면 산포마을 앞 황강 동쪽 들판의 지석묘군 아래인 산포유적 및 대야리유적[49]과 남하면, 남상면, 주상면, 가조면, 북상면, 거창읍, 웅양면 등지에서 창원대학교박물관이 보고한 지석묘군으로 보아 역사시대 이전부터 거창지역이 인간들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도면 1 참조)

청동기시대를 지나 기원을 전후한 시기는 고조선 붕괴 후 한반도의 남한지역에서 많은 정치체들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그 성숙도 또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거창지역 또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시기 거창지역은 변한지역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변한 12국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밝혀줄 고고학적 자료는 아직까지 조사된 바 없으나 거창을 가로 질러 흐르는 황강과 위천 그리고 천변의 너른 들은 정치체의 성장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음은 예견할 수 있다.

삼한사회를 지나 삼국시대에 접어들면 거창지역은 諸加耶 중 子他國에 속한 지

---

46) 현 신라대학교

47)『거창 임불리 천덕사지』,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1987.

48)『거창 임불리 선사주거지』,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1990.

49)『대야리 주거지』Ⅰ, 동의대학교박물관, 1988.
『대야리 주거지』Ⅱ, 동의대학교박물관, 1989.

역으로 비정되고 있다. 자타국은 입지적으로 보아 대가야와 가야지역으로 진출하려는 백제와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양 세력사이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선상에 놓여 있었으며 이를 거열산성이 증명하고 있다. 이시기 자타국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유적으로는 황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開封洞古墳群과 陽坪里古墳群이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유적으로는 둔마리 벽화고분과 양평리 석조여래입상, 상림리 석조관음 입상 등이 있으며 각각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任佛里遺蹟

이 유적에서는 중석기시대로 추정되는 세석기와 신석기시대의 원형주거지 4기와 융기문토기, 타제 및 마제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2) 大也里遺蹟

이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소형구덩이 1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15기와 지석묘 4기, 소형유구 11기, 옹관묘 2기, 가야시대 주거지 4기 등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평면형태에 따라 원형, 장방형, 타원형으로 구분되고 내부에는 원형의 노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신석기시대의 즐문토기, 청동기시대의 홍도·무문토기·석검·석촉·숫돌·어망추 등이 있고, 가야시대의 지석·경질토기편·연질토기편 등이 있다.

(3) 山浦遺蹟

이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1기와 지석묘 33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장방형 수혈주거지로 출토유물로는 공열토기, 구순각목토기, 공열구순각목토기, 홍도, 석촉,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지석묘는 조사당시 지표상에서 4기만 확인되었으나 조사결과 모두 33기가 확인되었다. 지석묘 출토유물로는 마제석검, 마제석촉, 홍도 등이 있다.

(4) 東邊里支石墓群

이 유적은 원래 죽동마을 주변의 들판에 입지하고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경지정리작업 때 현 위치에 이전하여 놓은 것으로 거창읍 황강 주변의 선사문화 연구에 기초가 되는 유적지이다.

(5) 上洞支石墓

이 유적은 안의, 마리쪽에서 거창분지로 이어지는 입구쪽 강변의 충적대지에 위치하며 모두 9기이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주변지역에 이와 같은 지석묘가 다수 있었다고 하나 경지정리 과정에서 훼손되었다고 한다.

(6) 開封洞古墳群

이 유적은 해발 800고지의 주봉이 남동향의 거창분지 중심으로 뻗어내린 저평한 구릉상에 위치한 거창분지의 중심고분이다. 고분의 전방에는 황강과 위천천이 합류하여 남류한다.

고분군에는 수십기의 대형분이 군집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1km 이상이 되어 기원후 5세기 전후 시기의 거창분지를 주무대로 활동하였던 중심세력권의 묘역으로 추정된다.

(7) 陽坪里古墳群Ⅰ

이 고분군은 金貴山(827m)이 거창읍쪽의 남서방향으로 뻗어내린 구릉말단부에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양평마을의 뒷산에 해당된다.

양평리고분군은 2갈래의 지맥으로 된 넓은 구릉상에 봉토분과 소형유구가 넓게 분포하는 대규모 고분군으로서 시기적으로는 기원후 5세기 전후 시기가 중심연대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8) 陽坪里古墳群Ⅱ

이 고분군은 양평리고분군Ⅰ과 Ⅲ사이의 해발 233m 정도 되는 소구릉상에 위치하며 이미 이 일대에 과수원과 민묘가 조성되면서 지형변경이 이루어진 관계로 많이 훼손되었으며, 민묘역의 단애면과 냇돌 등의 유구석과 경질토기편으로 보아 陽坪里古墳群Ⅰ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소규모 고분군으로 추정하고 있다.

(9) 陽坪里古墳群Ⅲ

이 고분군은 997번 지방도로에서 양평리고분군Ⅱ 유적으로 들어가는 소로의 입구에 해당하며 지방도 쪽으로 뻗어내린 그 지맥의 구릉상에 위치한다. 이 구역은 이미 민묘역과 밭으로 경작되어 있으며 외형상 규모가 현저한 봉토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토유물과 지형적 요소를 고려해 토광묘와 소형 석곽묘가 분포하고 있는 고분으로 추정된다.

(10) 老惠遺物散布地

이 유적은 거창읍에서 997번 도로를 가다가 황강의 이월교를 건너 첫번째 구릉의 남쪽 저지대에 해당한다. 유적의 북쪽 노혜마을 뒷산에는 보물 제377호로 지정되어 있는 양평리 석조여래 입상이 있다.

유물산포지의 배후에는 거창정수장이 있는 야산에서 황강쪽의 서편으로 뻗어내린 200m 내외의 저평한 구릉이 돌출되어 있으며, 이 구릉의 서편자락에서 경질·연질의 토기편이 채집된다.

(11) 上洞古墳群

이 유적은 거창읍 상동 996번지의 구릉 정선부와 사면일대에 위지하고 있다. 구릉 정상부에는 민묘가 곳곳에 들어서 있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도굴된 봉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사면의 일대에는 넓은 범위에 걸쳐 파괴석곽의 흔적과 후대의 평와 등 와편이 산재해 있다.

(12) 松亭里 운정고분군 I

이 유적은 마리면에서 거창읍으로 들어오는 입구쪽인 송정리 덕곡마을과 운정마을 사이의 북동향으로 뻗어내린 야산일대에 위치한다. 이 고분군내의 봉토분은 대부분 도굴되었으며 도굴구덩이 주변에서 가야후기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장경호편과, 유개고배 등이 채집된다.

(13) 松亭里 운정고분군Ⅱ

이 유적은 거창기능대학이 있는 운정마을에서 남서 방향으로 개설되어 있는 소로를 따라 올라가면 長八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야산일대에 위치한다.

고분군이 위치하는 저평한 이 구릉은 과수원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이 곳에서 가야시대 토기편이 채집된다.

(14) 金川洞 遺物散布地

이 유적은 거창박물관 남쪽의 KBS 중계소가 있는 저평한 구릉에 위치한다. 항아리편과 대옹 등의 경질토기편들이 다수 채집되는 지역은 구릉의 남동사면으로 이미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15) 屯馬里壁畵古墳

사적 제239호인 이 고분은 금귀봉(827m)의 동남지맥의 능선상 표고 450m에 위치한다. 고분이 소재한 능선은 폭이 매우 협소하여 겨우 1기의 고분이 들어설 만한 너비이다. 이 고분은 1971년 주민에 의해 신고된 후 1972년에 발굴조사 되었다. 분구는 방대형 봉토분으로, 고분의 전방 4m 거리와 8.4m 거리에서 시작되는 축대는 고분의 후측으로 가면서 사라지고 분구를 중심으로 'ㄷ'자형으로 돌려 쌓았다.

분구의 자락에는 방형의 호석을 돌렸는데, 지대석을 한 줄 놓고, 그 위에 판석으

로 된 면석을 얹었다. 호석의 규모는 남북 4.03m, 동서 3.66m(전면), 3.44m(후면)이고, 호석 위에는 봉토를 올렸으며, 분구의 잔존높이는 1.5m 가량이다.

(16) 陽坪里石造如來立像

보물 제377호인 이 석조여래입상은 별도의 蓮華座 위에 직립한 장신의 獨立像으로 한돌로 조성된 圓筒形의 신체에 굴곡진 허리와 두 다리 등에 量感이 표현된 羅末麗初의 불상이다.

신체의 비례보다 큰 머리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 말기의 파격이 엿보인다. 근엄한 얼굴, 각진 좁은 어깨, 몸에 붙인 두 팔, 신체의 굴곡이 드러난 얇은 옷주름이 U자로 흐르다 두 다리에 긴 타원형의 옷주름을 모각하였다.

(17) 上洞石造觀音立像

보물 제378호인 이 석조관음 입상은 八角蓮華座 위에 직립한 보살상으로 오른손은 몸에 붙여 淨甁을 잡고, 왼손은 가슴에 대어 연꽃송이를 쥔 모습이다. 높은 보계와 장방형의 평판적인 얼굴에 작고 긴 눈, 두터운 입술 등의 耳目口鼻의 표현방법은 보살상의 온화하고 자비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각이 진 어깨와 경직된 신체의 모습 그리고 좌우대칭적이고 도식적인 옷주름 처리 등 高麗時代 불상양식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다.

5. 조사대상지역의 환경

조사대상지역인 양평근린공원 조성부지는 거창읍에 속한 양평리(陽坪里)에 위치한다. 양평리는 거창읍의 동단부에 위치하며, 서쪽은 대동리(大東里)·서변리(西邊里)와 접하고, 북쪽은 학리(鶴里), 동쪽은 남하면(南下面), 남쪽은 대평리(大坪里)에 접하고 있다. 원래 양평리는 조선시대에는 음석방(陰石坊)으로 불렸으며 양평(陽坪)·당동(堂洞)·노혜(老惠)·금용(金龍) 등의 4개 마을이 있다[50].

금번 지표조사대상지역은 황강(黃江)과 위천(渭川)이 합수되는 지점으로 창녕공설운동장 맞은편의 들에 해당된다. 이 지점은 남류하는 황강이 크게 곡류되는 퇴적사면으로 수지상(樹枝狀) 수계(水系)를 따라 취락이 분포하며 니들을 사이에 두고 300m내외의 낮은 구릉이 마주보고 있어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리적 특징을 보인다. 하천의 충적사면이 넓게 발달되고 灌漑가 용이해 현재는 모두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배산임수의 지리적 특징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일찍부터 삶의 터전

50) 『居昌郡史』, 居昌郡史編纂委員會, 1997. 6

으로 선호되어 왔으며 삼국시대 고분군과 유물산포지 등의 유적이 주변으로 분포하고 있다. 삼국시대 고분으로는 양평리고분군Ⅰ~Ⅲ이 있으며 바로 이웃하여 노혜유물산포지가 있다[51].

양평리고분군Ⅰ은 니들의 북편을 북동방향으로 가로지르는 1084번 지방도로 위쪽의 양평마을 뒤편 남쪽구릉선상의 넓은 면적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1990년 창원대학교에 의해서 수행된 이 지역 지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고분군은 시기적으로 기원후 5세기 전후를 중심연대로 보며 유적 아래쪽인 집앞들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양평리고분군Ⅱ~Ⅲ[52] 역시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혜유물산포지는 거창 정수장이 있는 야산에서 황강쪽의 서편으로 뻗어 내린 해발 200m 내외의 돌출된 구릉선상에 위치하며, 경질과 연질의 도편들이 수습된다.

6.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황강(黃江)과 위천(渭川)이 합수되는 지점인데 거창공설운동장 맞은편인 북쪽으로 노혜유물산포지와 양평리고분군이 인접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300m내외의 야산이 강안을 따라 펼쳐지면서 하천을 따라 선상대지상으로 형성된 평야지역에 해당되어 灌漑가 용이해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남류하는 황강이 곡류되어 그 배후에 취락이 입지하는 자연지세이다.

공원조성 예정부지 전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50m 외곽지점까지 도보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역내에서 무문토기산포지와 기와산포지, 토기·자기산포지 등이 확인되었는데 구체적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도면 2·3 참조)

무문토기산포지는 거창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왼편에 위치하며 1171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경작지역내에서 무문토기 동체부와 저부편이 수습되어 이 일대에 당시의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와산포지는 무문토기산포지와 연접해서 그 왼편(북쪽)에 위치하는데 1142-2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북쪽으로는 노혜유물산포지와 양평리고분군이 연접하고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 지역에 과거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기와의 문양특징상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토기·자기산포지는 거창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오른편 경작지에 해당되는데 1182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현재,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타날문경질토기와 구연부편, 조선시대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

51) 『大伽耶文化圈 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 昌原大學校博物館·昌原文化財硏究所, 1996.

52) 양평리고분군Ⅱ~Ⅲ은 양평리고분군Ⅰ동편으로 '동산넘어골'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다.

위와 같이 조사대상지역에서는 무문토기산포지, 기와산포지, 토기·자기산포지 등이 확인되고 있고, 남류하는 황강의 충적지로 평저한 지세를 보이고 있어 생활유적과 관련된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대상지역은 1960년대 이후 경지정리로 인해서 원지형이 변형되었고 모내기철에 해당되어 조사구역에서 원만한 조사를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범위에서만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해당구역만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지 전 지역에 걸쳐 공원부지 조성에 앞서 반드시 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조사단 의견

이상, 양평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 공사구간에 대한 문헌적·고고학적 조사를 요약하여 보면, 본 조사구역은 황강과 위천이 합수되면서 해발 300m 내외의 소구릉이 북동쪽으로 뻗어 내린 자연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오랜 시기동안 생활공간으로 이용되어져 왔을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비록, 최근의 경지정리로 인해 조사구역의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져 있지만, 지표조사 결과 거창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왼편의 경작지에서는 무문토기산포지와 기와산포지가 확인되었고, 오른편의 경작지에서는 토기·자기산포지가 확인되는 등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밝혀졌다.

본 조사지역은 지하에 매장문화재의 유존이 예상되므로 양평근린공원 조성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현상이 변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공사시행에 앞서 반드시 매장문화재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보존조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志』<東夷傳>
『三國史記』(中宗 7년;1512년 본)
『高麗史』(復刻本)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與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成宗 23년;1492년, 癸丑字 活字本)
『慶尙道地理志』
『輿地圖書』
『慶尙道邑誌』
『嶺南邑誌』
『燃藜室記述』(日帝時代-朝鮮古書刊行會・光文會 인본)
『增補文獻備考』(純宗, 隆熙 2년;1908년 본)
『戶口總書』<慶尙道>
『嶠南誌』(1937년, 大邱慶文堂 活字本)

강영환,『한국의 건축문화재』-경남편, 기문당, 1999.
거창군,『거창 거열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거창군, 1997.
居昌郡史編纂委員會,『居昌郡史』, 居昌郡史編纂委員會, 1997.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1997.
권상노,『韓國地名沿革辭典』, 이화문화출판사, 1994.
문화재관리국,『韓國民俗綜合報告書-慶尙南道 篇』,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안장헌・이상해,『書院』, 열화당, 1999.
田溶新,『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5.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慶尙南道民俗集』,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원, 1991.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화수첩』, 역민사, 2000.
韓國精神文化硏究院 편,『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上)·(下)』, 한국정신문화원, 1999.

圖　版



도판 1. 거열성내에서 조망한 거창군 시가지(서→동)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전경(서→동)



도판 3. 조사대상지역 근경(남→북)



도판 4. 조사대상지역 근경(북→남)



도판 5. 기와산포지 근경(남→북)



도판 6. 무문토기산포지 근경(남→북)



도판 7. 토기・자기산포지 근경(남→북)



도판 8. 기와산포지 수습유물



도판 9. 무문토기산포지 수습유물



도판 10. 토기·자기산포지 수습유물



도판 11. 거열산성 전경(서→동)



도판 12. 상림리 석조관음입상 전경

(財)東亞文化硏究院 地表調査報告 第8輯

거창 양평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4년 6월 16일
발 행 일 / 2004년 6월 18일

編輯·發行 / (財)東亞文化硏究院

641-811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 B/D 201호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인 쇄 처 / 부 광 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 (055) 285-1834